

# 業界소식

## 64K EPROM 量産

□ 金星半導体(株) □

金星半導体는 자체 개발에 성공한 패스트 64K EPROM(자외선 消去 판독전용 기억소자)을 지난 달초부터 量産, 올해 400만弗, 내년에 1,300만弗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저항이 적은 이중금속 배선공법과 높은 설계효율의 제조공정을 채택, 정보처리 속도가 美·日 등 선진국 제품보다 빠른 35나노 초에 달하며 회로선폭이 1.5미크론이고 칩 하나에 8,000자의 정보를 기억시킬 수 있다.

또한 퍼스컴을 비롯 마이크로 및 미니 컴퓨터·통신장비·사무자동화 장비 등에 사용되는데 최근 관련 경기회복에 따라 수요가 급증, 공급이 달리고 있다.

## 非晶質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

□ (株)金星社 □

金星社の 中央研究所가 개발한 非晶質 실리콘 태양전지는 기존 단결정형 태양축전지보다 단위 면적당 전원용량이 크고 가격이 저렴하다.

이 태양전지는 계산기·시계용 전원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고효율화를 통한 발전 및 산업용 전원, 팩시밀리의 글자형태인식용, 전기신호로 바꾸어주는 이미지 센서 소재, 전자디스플레이어의 스위치 소자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非晶質 실리콘 태양전지는 '76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래 선진 각국에서는 고효율·대면적화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에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기초연구를 진행할 뿐 산업화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同社は 양산체제가 갖추어지는대로 이를 생산,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다.

## 光画像 시스템 개발

□ 大宇通信(株) □

大宇通信은 방송중계용 光画像 전송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초당 9DM Bit를 전송할 수 있고 전송로로 光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이 높아 선명한 화면을 전송할 수 있으며 화상회의·케이블 TV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송신장치와 수신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각경기장의 TV 카메라가 촬영한 화상을 光信号로 변환해 국제방송센터 및 忠北 報恩에 있는 위성통신지구국으로 전송한다.

한편 同社は 이 시스템을 오는 10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텔레콤 '87」 전시회에 출품,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 対美 직수출 物量 감축

□ 三星電管(株) □

三星電管이 CPT에 대한 美国 측의 덤핑 혐의를 벗기 위해 対美 직수출 물량을 줄이는 한편 美 商務省의 実査팀 내한과 관련, 두나라 계산방법상의 차이에서 빚어진 美国 측의 고의성 등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同社は 이에 따라 C.P.T의 対美 직수출 규모를 지난해의 20만개 900만弗 상당에서 올해엔 18만개 810만弗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同社は 지난해의 예비판정 결과가 4월 20일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美 商務省의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두나라 계산방법상의 차이에서 빚어진 美国 측의 자의성이나 비합리적인

부분 등을 찾아내 美国측 実査 팀에 이를 설명, 오는 가을께 있을 최종판정때 이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필리핀에 컬러 TV 생산공장 준공

□ 三星電子(株) □

三星電子는 三星物産을 통해 필리핀 시장을 개척하는데 성공, 전자제품 전문업체인 Solid그룹에 컬러 TV 제조기술 제공 및 브랜드 사용권, 소요부품을 첫 수출했다.

Solid 그룹은 이를 공급받아 삼성 브랜드 컬러 TV의 생산·판매를 전담할 마부하이社를 별도로 설립,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공장은 연간 4만대의 삼성 브랜드 컬러 TV를 생산, 우선 필리핀 국내에 판매하고 앞으로 생산시설 확장과 품목을 다양화, 동남아 일대에 수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三星電子는 올해 300만弗 등 90년까지 2,000만弗 이상의 컬러 TV 부품을 수출하고 이를 발판으로 싱가포르·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 자가 브랜드 진출을 강화, 수출지역을 다변화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한편 필리핀은 컬러 TV 시장 규모가 연간 15만대 정도이나 보급률이 5%에 불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현재 7개 업체 중 5개사가 일본과의 합작기업으로 이들이 8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円高로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있어 국내 전자업체의 경쟁력·기술력을 이용한 진출이 크게 유망시되고 있다.

## CVD시스템 공동 개발

□ 新邦電子(株) □

新邦電子는 美国의 삭스 리서치社와 공동으로 레이저 빔을 이용한 첨단기기인 CVD(컴팩트 비디오 디스크)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컴팩트 디스크를 이용해 컬러 비디오와 디지털 스테레오 사운드를 동시에 수록, 재생시킬 수 있으며 필립스社에서 개발한 CDV와 기능은 같으나 영상시간이 20분으로 필립스社 제품의

4배나 길다.

CVD 시스템이 VTR와 크게 다른 점은 사람이 화면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된 마이크로 컴퓨터를 통해 화면과 사람이 상호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同社は 이에 따라 美国의 최대 완구회사인 마텔社의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이용한 비디오 게임 머신도 개발, 내년중 시장규모가 1억弗 어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제품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

同社は 이의 量産을 위해 8월중 150억원을 투입, 利川에 새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 半導體 設計社 설립 및 세미나 개최

□ 亞南産業(株) □

亞南産業이 반도체 디자인 부문에 신규 참여, 美国 ASIC디자인 전문업체인 VLSI테크놀러지와 기술협약을 맺고 亞南半導體設計(株)를 설립했다.

亞南半導體設計(株)는 이에 따라 ASIC디자인을 위한 각종 설계 Tool을 국내 공급하게 되며 오는 9월 디자인 센터가 설립되면 스탠다드 셀, 게이트 어레이, 컴파일드 셀, 프로그래머블 조적 디바이스를 비롯한 각종 ASIC 디자인 사업 및 관련기술 제 공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同社は 그 동안 웨이퍼 가공 등의 사업참여를 검토해 왔으며 올초에는 차세대 반도체로 각광받고 있는 갈륨비소 반도체 분야의 진출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同社の 반도체 조립규모는 현재 연간 13억 개 규모이고 내년 화양동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연



간 19억개 규모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세계 반도체 조립 용역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亞南半導體設計(株)는 VLSI테크놀로지사의 설계담당 부사장(Mr. Raza)을 초청하여 「VLSI 설계기술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세미나를 지난달 9일 개최한 바 있다.

## 自動応答装置 開發

□ (株)韓都엔지니어링 □

韓都엔지니어링은 전화기를 단말기로 활용해 예금잔고 확인 등 각종 정보안내, 상품주문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음성자동응답장치를 개발했다.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는 3회선으로 3회선 단위로 증설이 가능하며 합성할 수 있는 단어는 1,000단어이다. 정전시에도 3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와 자체진단 시스템, 고객의 메시지를 기록용 및 공지사항 전달용 테이프장치를 내장하고 있으며 고객정보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장치는 전화가 걸려오면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고 고객은 안내에 따라 전화기 버튼을 눌러 필요한 지시를 한다. 이 신호를 분석,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음성합성장치를 통해 음성으로 알려주거나 고객이 요구하는 처리작업 등을 한다.

同社는 이 장치를 新世界와 大信証券에 공급키로 한데 이어 은행·증권회사 등의 잔고확인, 추가정보 안내, 백화점 등의 상품주문, 운송업체의 교통편 안내 및 예약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형 흑백 평면 TV 수출 급신장

□ 興陽交易(株) □

興陽交易이 최근 개발한 소형 흑백 평면 TV가 해외로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수출이 급신장되고 있다.

이 제품은 4인치 흑백 TV로 美国, 西独, 英国,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등 6개국에 수출하면서 무려 1,000만弗 상당을 계약했다.

특히 同社의 이 제품 수출은 지금까지 美国에 편중되어 있던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올림픽 상품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국내 시판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공장에 약 3억 5,000만원을 투입, 월 1만개의 소형 흑백 평면TV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同社는 수출 및 내수 증가에 대비, 연말까지는 月産 2만대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住所 및 變更事項 案内

□ 汎星電子(株)

- 변경일: 1987년 6월 1일
- 변경후 상호: 汎星電子(株)
- 변경전 상호: 汎星電子工業社

□ 세풍산업사

- 변경일: 1987년 6월 9일
- 변경후 상호: 세풍산업사
- 변경전 상호: 세광산업사

□ 大鳳精密

- 변경일: 1987년 6월 30일
- 변경후 소재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신리 498-9
- 변경후 전화번호: (0331) 35-7110, 7225

□ (株)미크론전자

- 변경일: 1987년 7월 1일
- 변경후 서울사무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9-16 (333-4974/6)
- 변경후 춘천공장: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244-37 (0361-53-8849)

□ (株)金星社

- 변경일: 1987년 7월 4일
- 변경후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럭키금성트윈타워 내)
- 변경후 전화번호: 787-3010, 785-2584

□ 金星電氣(株)

- 변경일 : 1987년 7월 13일
- 변경후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럭키금성트윈타워 내)
- 변경후 자본금 : 135억원

- 변경일 : 1987년 7월 31일
- 변경후 전화번호 : 0546) 2-9145/9

□ 大陸電線(株)

- 변경일 : 1987년 7월 16일
- 변경후 전화번호 : 0345) 491-7155/9

□ 우일전자통신(주)

- 변경후 상호 : 우일전자통신(주)
- 변경전 상호 : 신우전자공업(주)

□ 라니産業(株)

- 변경일 : 1987년 7월 20일
- 변경후 전화번호 : 032) 528-7511/9

□ 淸州電子(株)

- 변경후 대표자 : 李 相 俊
- 변경전 대표자 : 李 定 薰
- 변경후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서초동 1306-3

□ 東国綜合電子(株)

□ (株) 又 栄

- 변경후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
- 변경후 전화번호 : 549-3921/4

日本の 在 西 独 VTR 生産業体 生産能力 및 소재지

(단위 : 대)

현지업체명	日本투자업체	공장소재지	연간생산능력	비 고
MB Video GmbH	마스시다	Osterode	30만(86年)	Blaupunkt와 합작
Sony-Wege Products GmbH	소 니	Fellbach	6만(86年)	
Hitachi Consumer Products GmbH	히 다 치	Landsberg	35만(86年)	Telefunken, Thornemi와 합작
J-2-T Video GmbH	J V C	Berlin	40만(86年)	
Fischer HiFi Europa GmbH	산 요	Noerdlingen	25만(87年)	
Toshiba Consumer Products GmbH	도 시 바	Moenchengladbach	12만(87年)	